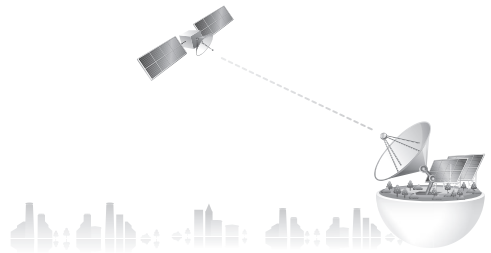


양계안테나



김동진 편집국장



광복 70년 축산업의 역사 닭사육수수 무려 100배 증가

광복 70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프로 및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졌다. 그중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는 '광복 70년, 농림업 70년 농업·농촌 사진전'이 열렸다. 양계와 관련된 사진속에는 과거 대나무와 짚으로 만든 닭 어리장에서 닭들이 사육되고 있는 사진이 이색적으로 눈에 들어왔다. 그 후로 70년이 흐르면서 최근의 사진에는 최신식 사육시설(케이지, 고상식 육계사 등)이 선되면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였다. 타 축종들도 어려웠던 과거와 희망찬 미래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면서 이곳을 찾은 국민들로부터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축산업의 경우 광복 이후 70년 동안 사육수수가 닭은 무려 100배, 축우는 최소 4배, 돼지는 50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대학교 최윤재 교수가 농촌진흥청에서 '광복 후 국내 축산업 발전현황'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는 정부의 각종 축산관련 통계 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인 지난 1945년 가축사육두수는 닭 152만수, 축우 60만두, 돼지 20만두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통계청이 밝힌 가축사육두수가 지난 2014년 기준(4분기) 닭 1억5천164만수, 축우 275만두, 돼지 997만두인 것을 감안할 때 닭의 경우 100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젓소 역시 축종별 가축사육두수가 집계된 지난 1970년과 비교해도 45년간 무려 17.7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우리 국민들의 육류소비량(2014년 기준)은 정부의 집계가 처음 이뤄진 1969년 당시 보다 8.2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의 경우는 77개에서 242개로 3.1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의 경우 무려 44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축산업 생산액도 급증, 지난해 축산업 생산액은 16.2조원에 달하며 농업생산액의 34.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축산업 생산액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농경연).

양계업을 비롯한 우리 축산업이 당분간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문제는 FTA 등 수입개방으로 인해 수입산물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자금을 하락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견되

고 있다. 70년동안 발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개선하고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간과 축산(양계)업의 공존 축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자

국내 양계산업은 AI 등 악성질병 발생과 FTA 등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적으로 악조건 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안티축산'이라는 단어가 종종 회자되면서 축산업계에서는 수급조절, 수입개방, 질병퇴치 보다 더 시급한 것이 '안티축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이라 할 것이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선호하는 층이 증가하다보니 축산의 경제적 가치와 다양한 기능보다는 환경문제로 접근하면서 축산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생산자단체는 물론 자조금연합회와 학계에서도 축산업 바로 알리기를 통해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을 꾀하려는 노력이 다방면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미 발족되어 활동하고 있는 축산업바로알리기연구회에서는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기 위해 '안티축산 개선 심포지움'을 진행해 오고 있는가 하면 동물자원과학회를 중심으로 한 축산관련 학회에서는 '인간과 축산업의 공존'이라는 대 명제를 놓고 매년 정기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계획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와 동물보호단체(카라)에서는 지난 11일 "아직도 복날에 닭과 개를 드시나요"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홍보물을 내걸고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채개장 나눔행사'를 실시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정 단체들의 검증되지도 않은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행사를 진행한 서울시도 문제지만 원색적인 표현들을 여과없이 보도하는 언론매체들도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서울시장이 축산단체들을 만나 재발방지를 막고 닭고기와 계란에 대한 홍보를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 펼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일단락이 되었지만 '안티축산'에 대한 인식을 뿌리뽑지 못한다면 축산업의 미래는 결코 희망적일 수 없을 것이다.

지난 1989년 축산물에 대한 잘못된 방송에 대해 본회를 비롯하여 축산업계에서 공영방송에 항의서를 전달한 일이 있었다. '이상구 박사의 새로운 출발'에서 동물성식품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채식만이 좋다는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축산인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동물복지에 호가, 채식주의자들은 틈만 있으면 이러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을 섭취하면서 균형된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축산물의 소중함을 소비자들에게 일깨워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이 기대된다. 물론 축산을 하는 축산인들도 환경개선 등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는데 한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양계**